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전통시장 활기 되찾아

모든 군민에게 3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장성군이 지난 8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이 움츠러들었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을 모든 군민에게 지급 중이다.

그간 장성군은 민선8기 출범 첫

날인 지난 7월 1일, 김한중 장성군수가 첫 규정업무로 지원금 예산 등이 포함된 2차추경편성계획을 결재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해 왔다.

행정력을 동원한 빠른 배부도 돋보인다. 장성군은 지난 8~9일 이틀 동안 군 공직자 90명을 투입해 읍면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원했다. 첫날인 8일 1만 5천300여

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35%의 지급률을 보였다.

지원금은 전액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해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지급 2일차인 9일, 장날을 맞이한 장성 황룡시장은 골목마다 손님들이 북적이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시장을 찾은 주민 임모 씨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가게를 꾸려가기 많이 힘들었는데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황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은 김한중 장성군수도 황룡시장을 찾아 장을 보며 민생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장성군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은 오는 9월 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가구원 1인당 30만 원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세대는 직접 방문해 지원금을 배부하고 있다. /유광중기자

영광, 농업인 미디어 촬영·편집 기초교육

오는 24일까지 농업인 대상 교육생 20여 명 모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관내 영상 제작·편집에 관심 있는 농업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크리에이터 육성 및 차세대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업인 미디어 촬영 및 편집 기초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정보화교육장 및 만곡 미디어 제작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농번기 바쁜 일정을 고려해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영상촬영 기법 및 실습,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상편집 이론 및 실습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만곡 미디어 제작소를 적극 활용해 영광농업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 도움이 돼,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현재 농업관련 콘텐츠를 운영 중 또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영광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061-350-4833)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관내 농산물의 홍보 효과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곡 미디어 제작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만곡 미디어 제작소는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촬영장비를 구비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경률기자

담양군-주필거미박물관 거미박물관 조성 협약 체결

담양군에 거미박물관이 들어선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주필거미박물관과 '거미박물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 거미 연구로 박사학위를 딴 '1호 거미박사' 김주필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평생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가 집약된 주필거미박물관의 자료의 기증을 약속하며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남양주 주필거미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약 40만여 점의 거미 표본과 각종 생물박제, 화석광물, 증류석 등을 모두 기증하고 담양군은 거미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필 박사는 "생물 박제표본들이 우수한 수장 조건을 갖춰 연구해 보존됐으면 한다"며 "우수한 생태환경과 친환경적인 농업,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는 담양에 새로 동지를 틀 거미박물관이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미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평생의 연구가 담긴 귀중한 자료를 맡겨주시는 김주필 박사님께 감사를 전한다"며 "박물관 건립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가족과 함께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성기자



명품 과일 '나주 배'가 올해 첫 미국 수출 길에 올랐다.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는 나주배원에농업협동조합과 함께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생종 배 상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제공

나주, 올해 첫 수확 나주배 '원황' 대미 수출

명품 과일 '나주 배'가 올해 첫 미국 수출 길에 올랐다.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는 9일 나주배원에농업협동조합과 함께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생종 배 상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 물질을 든 배 품종은 나주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원황(圓黃)'이다. 원황은 과즙이 풍부하고 새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단맛이 많고

감미가 좋은 국내 육성 품종이다. 수출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70톤으로 올해 수출 목표를 전체 약 2천300여톤으로 설정했다.

원황에 이어 '신화', '창조' 등 국내 육성 품종 수출을 앞두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배 브랜드 수출포장재', '농산물 수출물류비', '나주배 수출 전문단지 해충 포획기' 등 농가 지원사업과 '나주배 수출 전문단

지 육성', '해의 판촉행사 개최' 등을 통한 수출 판로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윤병태 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이상만시의회의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백상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주소장, 지준섭 농협무역 대표이사, 이동희 나주배원에농업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철기자

화순, '민원 서비스 실명제' 추진

민원창구 전용 명함 제작·명패 교체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민원 행정의 책임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 서비스 실명제'를 추진한다.

최근 군 행복민원과 민원창구 직원들은 민원인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잘 볼 수 있게 명패의 사이즈를 키우고 창구 전면에 비치했다.

군은 전 직원 명찰 패용에 이어 민원실 명패 교체와 전면 비치로 통해 '민원서비스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명패 크기가 작고 업무용 책상에 비치해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해당 직원의 명패를 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민원들은 상담과 서류 작성 등을 봐주는 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군은 명패 교체와 함께 '민원창구 전용 명함'을 제작해 민원창구에 비치했다. 꼭 필요한 민원창구 전화번호를 명함 형태로 제작, 비치해 궁금한 사항은 교환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전화 문의할 수 있게 돼 민원 문의가 많이 편해졌다.

이는 군민을 섬기고 군민과 소통을 원하는 구복규 화순군수의 뜻을 반영한 민원실의 개선책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명패는 직원 자신이 제공한 민원서비스에 책임을 지겠다는 사명감과 의지가 담긴 변화"라며 "민원창구 명함으로 민원 업무의 편리함을 더했고 앞으로 군민이 감동하실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호경기자

무안군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향!
무안을 말하다...